

전북교육청, 코로나 예방관리 총력

학교방역 현장지원 TF협의회, 보건업무담당자 협의회 잇단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방역 현장지원 TF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협의회는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코로나19 방역 실행 마련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

이다. 학교방역 현장지원 TF는 도내 각급 학교 교사 및 교(원)장 및 교감 등이 참여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극 건의·반영하고 있다.

이날 TF협의회에서는 2학기 코로나19 방역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2021학년도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 수립 방향 및 학교 방역 관련 추진 시 교육청 협조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교사·전문상담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 등 심리방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이어 함께 추석연휴 기간 방역 수칙 준수, 학내시설을 활용한 각종 행사·모임 관리 철저, 연휴 이후 학생 자가 진단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보건업무담당자 협의회'도 진행했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보건업무담당자와 기간제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 방안과 학교보건업무 컨설팅 지원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지난 7월과 9월 인사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의 보건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지침을 안내해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김은희 장학사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방역 현장지원 TF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학생 4명이 전주시 최초 아침식사 새벽 배송 기업 '잇모닝(대표 김현우)'을 창업해 화제다.

“신선하고 건강한 아침 배달합니다”

전북대생들, 새벽배송기업 '잇모닝' 창업 '화제'

“신선한 아침을 배달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생 4명이 전주시 최초 아침식사 새벽 배송 기업 '잇모닝'(대표 김현우)을 창업해 화제다.

기업 이름인 잇모닝은 '신선한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의미다.

정민태(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현우·윤탁(생물환경화학과), 진재현(식품공학과) 학생은 매장 식사보다 배송을 선호하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식사 배송 서비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달리 도내에서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맞춤형 서비스 주 고객은 1인 가구, 자취생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간편하고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품을 개발했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제품은 유명 기업들에 비해 평균 10% 이상 저렴하며, 기본 배송료 1,500원에 1만 원 이상 주문할 경

우 무료로 배달해 준다.

또한 제품 생산도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제조를 택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철학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다.

윤탁 잇모닝 매니저는 “아침이 바쁜 지역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추후 과채류, 밀키트, 일반 생활용품까지 제품군을 확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준수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전하고 성과를 거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북대의 우수한 창업교육시스템을 통해 특목

튀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잇모닝은 전북대와 전북경 제물상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http://www.eatmoming.co.kr>)에서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단-리바웨이브 IT기술 개발 및 현장실습 협약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주승)은 (주)리바웨이브와 재학생 취업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학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변주승 단장, 심동희, 박지수 교수, 이용노 산학협력지원실장과 안수용 부사장, 오은경 대외협력팀장, 김태원 마케팅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산업체와 공동 기술 개발 연구 및 기술지도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 취업 지원 ▲기술특허 이전을 통한 수익 모델 발굴 지원 ▲CBO 특강 프로그램 운영 ▲사내법인을 통한 장학금 제도 마련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변주승 단장은 “인터넷 범죄 예방 등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IT 보안 기업인 (주)리바웨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며 “산업체 발전과 연구환경 조성, 재학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주승)은 (주)리바웨이브와 재학생 취업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공모심사

초 9 · 중 4 · 고 2교 등 15개교

전북도교육청이 2021년 신규 혁신(+)학교 공모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모집하고, 14~18일까지 5일 간 도내 초 9개교, 중 4개교, 고 2

개교 등 총 15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심사결과 협의와 29일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초 혁신(+)학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위한 노력 ▲학교지지를 기초로 한 교육주체들

의 민주성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혁신을 선도할 학교 등을 심사에 우선 반영한다. 특히 혁신(+)학교는 지역혁신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와 연계한 연대와 협력의 교육활동 노력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1년 지정 혁신학교는 2021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우수 중소기업에 학생 인턴 파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현장형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16명의 학생을 산업인턴으로 파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산업인턴 파견은 전북대 공과대학이 2015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단'에서 진행해 온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학협력회의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산업인턴으로 선발한 재학생을 호남권역 내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4개월 간 파견돼 현장실습을 수행한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적용해 R&D(연구개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정밀한 매칭 작업이 진행된다.

앞서 학생들은 기업 업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엑셀(EXCEL) 고급교육 및 직장 내 인성 함양 및 예절을 위한 특화교육도 받아왔다.

산업인턴으로 기업에 파견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4개월간 총 60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최대 18학점(일반선택)까지 현장실습 학점이 인정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다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심사상영과 온라인 상영, 장기 상영회로 코로나시대의 안전 방역 영화제를 선보인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여기서 마칩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더 가까이 찾아가겠습니다.

JEONJU²¹
intl. film festival

www.jeonjufest.kr